

崔惟清 「雜興」의 聯詩的 特性

윤 상 립*

<목 차>

- | | |
|-----------------------|---------|
| I. 머리말 | 3. 침묵 |
| II. 다른 수에서 서술된 序首의 함축 | 4. 무념 |
| 1. 푸른 봄 | III. 결론 |
| 2. 낮잠 | |

【요 약】

崔惟清의 五言古詩 「雜興」은 그가 大寧侯 暉 일로 연루되어 56세인 1151년 5월 南京留守使로 강직되었다가 忠州牧使로 옮기기 직전인 62세인 1157년 2월 초봄에 쓴 작품이다. 「雜興」은 6년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동일한 주제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聯詩로서 序首 격인 첫 수에서 함축된 화자의 정서를 나머지 여덟 수에서 서술로 구체화 하고 있다.

푸른 봄은 생명력과 젊음을 상징하는 계절로 정치적 포부를 잃어가는 노쇠한 화자와 대비된다. 초라함을 느끼는 화자는 봄이 되어도 흥이 나지 않는다. 푸른빛 초봄은 아직 복숭아꽃 배꽃이 피지 않은 상태로 푸른빛 초봄은 화자가 좌천된 상태이고 봄의 절정인 복숭아꽃 배꽃이 피는 것은 개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낮에 자는 잠은 낮으로 상징되는 현실에서 화자가 도피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술에 취한 화자의 상태는 한낮에 잠에 든 것과 동일하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낮에는 갈등과 번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다가, 자신의 세계를 상징하는 밤에야 정체성을 찾는다.

고요 속에 침묵을 지키는 화자의 정서는 불안한 상태이다. 그의 진정한 고뇌는 외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보다 좌천된 이유 때문이다.

지는 해를 보면서 무념의 상태에 도달하는 화자는 낮의 화사한 풍경에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념에 대한 굳은 의지는 화자의 번민에 쌓인 상태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1. 머리말

崔惟淸(1085-1174)은 문종·선종 때 지공거를 지낸 崔爽의 아들로, 예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명종 때까지 활약한 문인이며 학자이다.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인종이 즉위한 후 李資謙 집권기 때 실직했다가 李資謙의 실권 후 內侍로 소환되어 여러 번 승진하여 좌사간으로 있다가 尙州 원으로 나가서 백성을 위한 정사를 하였다. 그 후 시어사로 임명되고 어사중승으로 전직되었는데, 그가 진언한 정론 중에는 왕의 뜻을 거스린 말이 있어서 전중소감으로 좌천되었다가 곧 간의대부로 임명되었다. 금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책명을 사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언어와 행동이 예절에 맞아서 금나라 사람들이 탄복하고 공문을 본국으로 보내 그의 벼슬과 봉급을 올려 주라고 의뢰하였다. 귀국 후 호부시랑으로 임명되고 후에 동북면병마부사로 나가 있었는데 동북 국경 지대가 그를 장성처럼 믿었으며 소환되어 승선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의종 초년에 지주사로 승진되어 직무에 충실하였으므로 승진하여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판병부사로 임명되었다. 당시 崔惟淸의 매부 낭중 鄭敳가 중종 왕위 찬탈의 무고를 받았던 의종의 다섯째 아들이며 중종의 아우인 大寧侯 暉을 초대할 때 그릇을 빌려 준 일로 간관들이

崔惟淸이 대신의 체면을 잃었다고 간하여 56세인 의종 5년(1151) 5월 南京留守使로 강직되었으며¹⁾ 62세인 1157년 2월 忠州牧使로 이직되었고²⁾ 63세인 1158년 3월 廣州牧使로 이직되었다³⁾ 그가 비록 지방으로 강직되어 오랜 기간을 지냈으나 태도가 태연하였으므로 임금도 그가 충직하고 다른 뜻이 없는 것을 깨닫고 다시 평장사로 임명하려 하였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공좌복야로 있다가 명종이 즉위하자 崔惟淸의 지난날의 덕행과 명망이 있었음을 알고 그를 중서시랑 평장사로 임명하였다가 이어 수사공집현전대학사판예부사로 올리고 66세인 1161년 12월에 치사하여⁴⁾ 명종 4년(1174년)에 죽으니 향년이 80세였으며 시호를 文淑라 하였다.⁵⁾

왕명으로 『李翰林集注』와 『柳文事實』을 편찬하였고, 그 외에 문장 수백 편과 『南都集』의 저작이 있는데,⁶⁾ 지금 그의 작품은 『동문선』에 詩 14수, 文 39편이 전하고, 『東人之文』에 사료문이 57편, 『補閑集』에 南京 留守使로 갈 때 아들에게 훈계한 詩 1수와 韓彦國에게 준 詩 두 구절이 전한다.

崔惟淸의 五言古詩 「雜興」은 5수에서 개경을 서북이라고 표현한 것과 8수에서 현재 서울의 삼각산 부근 지역⁷⁾인 楊州에서 6년을 지냈다는 내용으로 볼 때, 1151년 5월 南京留守使로 강직되었다가 忠州牧使가 되기 직전인 1157년 2월 초봄에 중앙 정계 복귀를 고대하며 쓴 聯詩임을 알 수 있다. 「雜興」은 현존하는 최초의 聯詩인데, 「雜興」뿐만 아니라

1) 『고려사절요』권11, 의종 장효대왕, 신미 5년.

2) 『고려사절요』권11, 의종 장효대왕, 정축 11년.

3) 『고려사절요』권11, 의종 장효대왕, 무인 12년.

4) 『고려사절요』권11, 명종 광효대왕, 갑오 4년.

5) 『고려사』권 90 열전, 종실1.

6) 『고려사』권 90 열전, 종실1.

7) 근래에는 아차산 부근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南京 지금의 서울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지금까지 漢詩 연구에 있어 聯詩로 된 작품은 각 수의 관계보다는 주로 내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던 바, 聯詩라는 형식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聯詩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식적인 노력이 개입된 것으로 각 수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는 한 작가의 문학적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작가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崔惟淸의 五言古詩『雜興』에서 중앙 정계의 복귀를 염원하는 화자의 정서가 어떤 양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연결 방식을 중심으로 聯詩로서의 구성 원리를 살펴본다.

2. 다른 수에서 서술된 序首의 함축

일반적으로 古詩는 고도의 함축과 여운을 중시하는 絶句나 엄격한 仄仄과 對句를 요하는 律詩 같은 近體詩에 비해 韻이나 仄仄면에서 자유로운 형식이다. 古詩는 唐代에 완성된 近體詩 이전의 시형으로, 漢·魏·晉·남북조 시인이 쓴 시를 唐代 사람들이 불렀던 명칭이다. 五言古詩는 기원 전 10-20년에 시작하여 100-200년에 성립되었고 七言古詩는 魏 나라 때 시작하여 唐初에 완성되었는데, 광범위한 제재와 다양한 풍격 때문에 近體詩가 완성된 후에도 古體詩의 창작은 계속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五言古詩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민가 풍 樂府詩들이 정형화되면서 완성된 것으로, 漢代 樂府詩와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 五言은 자수가 적기 때문에 읽어보면 침착하고 완만한 기상이 있고 일상어와 비슷하다. 五言古詩는 五言民歌에 뿌리를 두었으나 東漢 이후에는 음악에서 완전히 독립했는데, 표현 방식이 구어와 산문에 비교적 가깝다.

聯詩란 단일한 주제 아래 단형시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내용을 두 수 이상의 작품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형식으로, 단순히 하나의 제목 아래 개별 시를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식적인 노력이 개입된 것이다⁸⁾ 「雜興」은 아홉 수의 五言古詩가 중앙 정계에 복귀하려는 화자의 원망이라는 단일한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聯詩로써, 첫 수는 전체를 포괄하는 序首 격으로 기다림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번민을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첫 수의 시간적 배경은 봄으로 온 세상은 푸르고 나비들은 동산에 가득하다. 이때 동쪽 바람이 불어와 잠자는 화자를 깨운다. 잠에서 깨어난 화자는 고요 속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지는 해를 보면서 모든 시름을 잊는다.

春色忽已綠	봄빛은 어느새 푸르고
滿園胡蝶飛	동산 가득 나비 나는데
東風欺人睡	봄바람 가만히 불어와
吹起床上衣	평상 위 옷자락에 스친다
覺來寂無事	잠에서 깨어 고요히 아무 일 없는데
林外射落暉	수풀 밖에는 지는 해 눈부셔라
倚攬欲嘆息	난간에 기대어 탄식하려다가
靜然已忘機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네

「雜興」9-19)

첫 수는 五言古詩임에도 불구하고 묘사가 주가 되는 전형적인 서경시로 起承轉結로 전개된다.

시에 해당하는 1-2구에서는 봄날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세상은 봄이 되어 이미 푸른빛을 띠었고 동산 가득 나비가 날고 있는 봄 풍경을 묘사하여 시를 시작하고, 承의 3-4구에서는 동쪽 바람 가만히 불어와 평상 위 옷자락에 스친다는 것으로 1-2구의 뜻을 받아 봄날 낮잠을 자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정경 묘사는 장면 제시를 통해 화

8) 김혜원, 「18·19세기 연시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7쪽 참조.

9) 『동문선』 권4, 오언고시.

자의 정서를 암시한다. 푸른빛 봄은 동산 가득 나비가 날고 있는 생기 넘치는 분위기지만, 아직 꽃이 만발한 상태는 아니다. 꽃들이 만발하지 않은 푸른 봄은 시기상조를 뜻한다.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화자는 봄 경치에는 무심하다. 시기상조와 무관심한 태도는 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암시한다.

轉인 5-6구에서는 1-4구의 풍경 묘사가 상황 묘사로 바뀌며 잠자던 화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폐쇄된 자아의 공간에서 나와 외부 공간인 봄 풍경과 만나지만, 상황은 고요히 아무 일 없고 물끄러미 해가 저무는 광경을 바라볼 뿐이다. 봄 경치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이다. 화창한 봄 날씨와 동산 가득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저무는 해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침묵이 오랜 시간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봄 풍경에 대한 오랜 침묵은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암시하는 것으로, 1-4구에서 나타난 푸른 봄에서 보였던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된다.

結인 7-8구에서 화자는 해가 저무는 광경을 보고 무념의 상태에 도달한다. 화자가 외부 경치에 몰입하여 무념 상태가 되는 것은 밝고 따뜻한 봄의 낮 풍경이 아니다. 화창한 낮에는 잠을 자던가 침묵을 지킨다. 이는 초봄 밝고 따뜻한 낮이 화자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암시한다.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은 대상을 그 자체로 바라본다는 뜻이지 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여주는 과정에서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처럼 할 뿐이다. 시에 나타난 자연은 하나하나가 시인의 시점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으로, 총체적 의미를 함축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서를 투영한다. 즉 대상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대상의 다양한 측면의 어떤 곳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관의 개입이며 숨겨진 작자의 의도인 것이다. 화자의 관심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다. 시적 대상은 화자의 주관적인 심적 상황을 객관화 한 것으로, 화자의 내면 대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때 화자의 정서와 시적 대상인 사물은 하나로 결합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기법은 어떤 장면을 단편적으로 불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첫 수는 화자의 정서를 대상의 순간적이고도 감각적인 모습과 구체적인 형상의 배후에 감추어두어 감동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함축의 기법¹⁰⁾을 사용하여 봄과 낮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암시한다.

이처럼 서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암시하는 기법은 絶句나 律詩와 같은 近體詩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으로, 「雜興」첫 수는 압운과 평측이 자유롭다는 古詩의 특징을 제외한다면 近體詩의 압축적인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압축적인 표현은 8구의 단편 古詩이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산문화된 직설적인 어법으로 장중하면서도 음조나 말의 변화를 풍부하게 하여 굴곡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는 강한 기세를 보이¹¹⁾ 무신집권기 장편 古詩와는 다른 풍격을 보여준다. 첫 수에서의 함축된 표현들은 나머지 여덟 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구체화된다.

1. 푸른 봄

첫 수에서 푸른빛 봄은 동산 가득 나비가 날고 있는 생기 넘치는 분위지만, 아직 꽃이 만발한 상태는 아니다. 꽃들이 만발하지 않은 푸른 봄은 시기적으로 봄의 절정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기상조이다. 전체가 서술로 이루어진 8수에서는 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왜 부정적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六載遊楊州	여섯 해를 楊州에서 지내면서,
五賞楊州春	다섯 번 楊州의 봄을 즐겼네.
楊州春似舊	楊州의 봄은 옛날과 같은데,
老面但日皺	늙은 얼굴엔 단지 날로 주름만.

10)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216쪽 참조.

11) 趙齊平, 『宋詩臆說』, 北京大學出版社, 1996, 346쪽 참조.

壯志雖已鏤	장한 뜻은 비록 이미 사그러졌지만,
風情與時新	風情은 때와 함께 새로워지네.
最憐街頭柳	가장 어여쁜 길가 버들이여,
嫋嫋欲惱人	하늘하늘 사람을 심란하게 하네..

『雜興』9-8

楊州는 고려 당시 현재 서울의 삼각산 부근의 지역²⁾이었다. 楊州에서 6년을 지냈다는 말로 보아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56세인 1151년 5월 南京留守使로 강직되었다가 1157년 2월 忠州牧使가 되기 직전인 62세 봄이다.

여섯 해를 楊州에서 지냈다는 말은 이미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귀경의 소식이 없음을 암시한다. 더구나 다섯 번째 맞이하는 楊州의 봄은 예전과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자신의 늙은 얼굴엔 날로 주름만 늘어간다. 젊은 시절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때 가졌던 화자의 씩씩했던 뜻도 외직 생활을 하면서 이미 퇴색했는데도, 화사한 봄의 풍취는 오히려 새롭기만 하다. 봄을 柳色이라고도 하는 것은 버들이 봄과 청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주기 때문인데,¹³⁾ 봄바람에 하늘하늘 나부끼는 싱그러운 버들의 자태는 늙고 포부를 잃어가는 화자의 마음을 그지없이 심란하게 만든다. 봄의 상징인 버들은 화자의 마음을 심란하게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화자에게 봄은 잔인한 계절이다.

아직 꽃들이 만개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초봄은 화자에게는 심란하고 그리 즐겁지 않은 계절이었다. 그러나 복숭아꽃 배꽃이 곧 피리라는 기대는 지금까지 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게 한다.

12) 근래에는 아차산 부근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南京이 지금의 서울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다.

13) 이해원, 『중국시에서의 楊柳 이미지 분석과 상징의 연원』, 『중어중문학』 22, 중어중문학회, 1998, 28쪽.

嬌雲弄晴暉	아리따운 구름은 햇살을 희롱하고
庭草綠如染	뜰의 풀들은 물이라도 들인 듯 푸르구나
鳥酣嘯嚶嚶	새는 흥겨워 우지짓고
蝶喜飛苒苒	나비는 즐겁게 훨훨 난다
芳序忽如此	꽃다운 철이 어느새 이와 같은데
愁眉不須斂	근심으로 눈썹일랑 찌푸릴 것 없네
擬待桃李開	복숭아꽃 배꽃 피기를 기다리노라면
瓮頭方激激	술항아리는 찰찰 넘치리라

「雜興」9-7

아리따운 구름은 햇살을 희롱하고 뜰의 풀은 물이라도 들인 듯 푸르며, 새는 흥겨워 우지짓고 나비는 즐겁게 훨훨 난다. 전반부의 봄 풍경은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하고 흥겹다. 화자는 어느 때보다도 봄의 따사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봄에 대한 부정으로 일관했던 화자의 태도에 이처럼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꽃 때문이다. 꽃다운 철이 어느새 이와 같은데 근심으로 눈썹일랑 찌푸릴 것이 없다는 서술로 푸른 봄에 가졌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화자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곧 복숭아꽃 배꽃이 피기 때문이다. 복숭아꽃 배꽃의 만개는 봄의 절정으로 화자에게는 기대와 즐거움을 준다. 화자가 기다리는 복숭아꽃 배꽃은 복귀의 소식이기도 하다. 그때가 되면 넘치는 항아리의 술을 마시며 봄의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2. 낮잠

낮은 밝고 생명이 충만하다. 특히 봄날 한낮의 햇살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첫 수에서의 화자는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다.

잠을 자는 인간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일종의 가사 상태이다. 그에게는 인지의 능력이 없다. 화자는 잠을 통해 자신의 현실이 주는 괴로움

에서 도피한다. 화자는 잠에서 깨어났어도 침묵할 뿐이다. 낮으로 상징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낮은 좌천된 현실이 확인되는 고뇌의 시간이다. 그래서 잠은 깨어도 해가 질 무렵까지 적막한 상태가 계속된다. 고요 속의 침묵은 화창한 봄날도 아랑곳없이 낮잠으로 소일하는 화자의 고뇌를 암시한다. 낮잠은 낮으로 상징되는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낮으로 상징되는 화자의 현실적 고뇌는 재상까지 지냈던 화자가 정치 생활의 절정에서 웅대한 포부를 미처 다 펴 보이지 못하고 지방관인 남경유수사로 와 6년이나 지낸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뇌에서 탈출하고픈 화자는 술에 힘을 빌린다.

人生百歲間	인생 백 년이
忽忽如風燭	빠르기가 바람 앞에 촛불 같구나
且問富貴心	문노라 부귀를 구하는 마음이
誰肯死前足	누군들 죽기 전에 만족할 것인가?
仙夫不可期	신선되기는 기약할 수 없고
世道多翻覆	세상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聊傾北海尊	北海의 술통 ¹⁴ 이나 기울여
浩歌仰看屋	큰소리로 노래하며 천정이나 쳐다보네

「雜興」9-2

인생 백 년이 빠르기가 바람 앞에 촛불 같다는 말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초조함을 뜻한다. 화자에게 외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좌천이라는 현실에 적응 못하고 중앙 정계 복귀를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부귀를 구하는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귀를 구하는 마음은 누군들 죽기 전에 만족할 것인가, 부귀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되묻고 있다. 모든 욕심을 버린다고 신선이 되기도 어렵고 속세에서 범인으로 살자니 세상길은

14) 漢 나라의 北海太守 孔融은 “자리에 는 늘 손님이 가득하고 술통에는 늘 비지 않았으면” 했다고 한다.

험난하기만 하다. 그러나 술로나 시름을 달랠 수밖에 없다.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하며 천정이나 쳐다보는 화자의 행위는 화창한 봄날 낮잠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는 첫 수의 행위와 동일하다.

잠으로 인해 현실을 이탈했던 화자는 옷자락에 스치는 바람결에 잠을 깨지만 침묵을 지킨다. 화창한 봄 날씨와 동산 가득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는다. 그러다가 해가 저무는 광경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탄식을 하려다가 모든 생각을 잊고 무념의 상태에 도달한다. 화자가 외부 경치에 몰입하는 것은 맑고 따뜻한 봄의 낮 풍경이 아니다. 오히려 화창한 낮에는 침묵을 지킨다. 화자가 무념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해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낮을 상징하는 해가 저물어야 비로소 자신의 갈등과 화합할 수 있는 것이다. 깊은 밤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蒼蒼山中桂	푸르디푸른 산속 계수나무는
托根臨嶮巖	험한 바위틈에 뿌리내렸네
霰雪紛可畏	무섭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도
孤貞亮難移	곧은 절개는 꺾을 수 없어라
夜月冷相照	한밤 중 달은 차갑게 비추는데
春風綠漸滋	봄바람에 푸름은 더해만 간다
欒枝久佇立	가지를 부여잡고 오랫동안 서 있다가
空詠小山辭	부질없이 小山辭 ¹⁵⁾ 를 읊조린다

「雜興」9-3

푸르디푸른 산속 계수나무는 화자 자신으로 온화하고 고결한 인품과 志節을 상징한다. 험한 바위틈이란 당시 중앙 정계의 암투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역경을 암시한다. 무섭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시련과 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결한 인품과 임금에 대한 곧은

15) 漢 나라 淮南王 劉安의 문하에 大山과 小山 등의 무리가 은거하는 선비를 세상에 나오라고 招隱辭를 지었다.

절개는 어떤 역경에서도 꺾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6) 그런데 이 계수나무가 봄바람에 푸름이 더해만 가는 시간은 낮이 아닌 한밤중에 차갑게 비추는 달빛 아래서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임금에 대한 절개는 더욱 굳어간다는 자기 고백이다. 화자에게 밤은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는 시간으로 어느 때보다도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시간이다.

자신의 충성스런 마음과 일치시켰던 계수나무 가치를 부여잡고 오랫동안 서 있던 화자는 부질없이 小山辭를 읊조린다. 小山辭는 漢 나라 淮南王 劉安의 문하에 大山과 小山 등의 무리가 은거하는 선비를 세상에 나오라고 부른 招隱辭이다. 招隱辭는 은거하는 사람을 세상에 나오라고 부르는 노래이지 은거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그런데도 은거하는 본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중앙 정계에 복귀하고픈 염원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된 것이다. 부질없이 읊조린다는 것은 결국 쓸데없이 읊조린다는 뜻으로 계수나무와 같은 고귀한 절개를 가진 자신을 위해 小山辭를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을 강조하는 부사이다.

일반화된 상징과 자신의 정서에 맞는 서사적 내용을 가진 故事를 인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요약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밤을 보낸 화자는 동이 트기를 기다린다.

幽人夜不寐	은거하는 사람 밤새 잠 못 이루다가
待曉開窓扉	새벽을 기다려 창문을 연다
曙色天外至	먼동은 하늘 밖에 이르렀는데
空庭尙熹微	빈 뜰은 아직도 희미하다
南枝動春意	남쪽 가지에는 봄뜻이 움직이고
歸鴈正北飛	돌아가는 기러기는 마침 북으로 날아 가네
萬物各遂性	만물은 각기 제 성품대로 사니
仰賀璇與機	天道의 운행을 우러러 경하 드린다

『雜興』9-4

16) 이구의, 「文淑公 崔惟淸」, 『高麗漢詩研究』, 아세아문화사, 2001, 114쪽 참조.

밤을 새운 화자는 새벽을 기다려 창문을 열어 해를 맞으려 한다. 새벽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으로, 지루하고 어두운 밤을 이겨낸 희망의 시간이다. 그것은 새로움이며 시작을 뜻하는 흥분된 시간이다. 새벽의 의미는 희망, 곧 미래 지향적이며, 재생의 의미를 갖는다. 먼동은 거의 하늘 밖에 이르렀건만 빈 들은 아직도 희미하다는 것은 복숭아꽃 배꽃이 만발하지 않은 푸른 봄과 동일한 의미로, 복귀가 될 듯 하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화자의 현실을 뜻한다.

봄이 되니 남쪽 가지에는 새싹이 움트고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간다. 이것은 모두 자연의 순리이다. 무엇도 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는 없다. 화자는 만물은 각기 제 성품대로 사는 이치를 깨닫고 위대한 天道의 운행에 우러러 경하를 드린다. 우러러 경하한다는 것은 공평 정대한 天道의 운행의 재확인이 주는 위로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¹⁷⁾ 그런데 이 위안은 天道의 운행이 공평 정대하여 만물이 제 자리를 찾듯이 잘못이 없는 자신은 결국 순리대로 중앙 정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오는 것으로, 화자는 중앙 정계로의 복귀라는 염원에서 언제나 자유롭지 못하다.

3. 침묵

잠으로 인해 현실을 이탈했던 화자는 옷자락에 스치는 바람결에 잠을 깨지만 해질녘까지 고요 속에 침묵을 지킨다. 화창한 봄 날씨와 동산 가득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默默又默默	침묵하고 또 침묵하리라
百年會有極	백 년이면 마침내 끝이 있을 텐데
頭上蓬已疎	머리 위 다복쑥은 이미 성기고

17) 이혜순, 앞책, 318쪽.

眼邊花正黑	눈가의 검버섯들은 검기만 하다
春至苦無惊	봄은 왔건만 흥이 나질 않으니
夢歸竟何益	돌아가는 꿈을 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舉頭看白日	머리를 들어 밝은 해를 바라보니
長安在西北	長安은 서북에 있네

『雜興』9-5

첫 수에서 지극히 객관적으로 정경을 묘사했던 어조와 달리 화자의 생각과 느낌이 작품 표면에 직접 드러난다. 침묵하고 또 침묵하리라, 백 년도 마침내 끝이 있으리라. 이렇게 복귀를 기다리며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외직에서 보내는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머리카락이 빠지고 검버섯이라고 묘사한 화자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과 대조가 되어 더욱 초라해 보인다. 첫 수 후반부에서 함축적으로 서술되었던 화자의 모습과 정서가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짧아져 솔직히 드러난다. 첫 수에서 화창한 봄날에 낮잠을 자는 화자의 태도가 암시되었는데, 여기서는 봄이 와도 흥이 나질 않는다는 화자의 고백에 의해 확실시된다. 화창한 봄과 대되는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기 바라는 개경으로도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자에게 해는 임금인 의종을 연상시킨다.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지만 여기서는 개경을 뜻한다. 개경을 서북이라고 한 것은 현재 화자의 위치가 개경에서 동남쪽이라는 뜻으로, 5수에서 楊州라는 지명으로 보아 南京임을 알 수 있다. 돌아가는 생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자신에게 반문하지만, 아무리 체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복귀의 염원이다. 개경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화자가 해를 바라보며 장안이 서북에 있다는 서술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암시한다.

화자가 이토록 개경 복귀에 집착하는 것은 남경유수사라는 직책이 단지 외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李資謙의 실권 후 內侍로 소환되어 벼슬이 여러 번 올라 좌사간으로 있다가 尙州 원으로 나가서도 백성을 위해 은혜로운 정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중부 난에 문관들

이 모두 살해당하였으나 여러 장수들이 평소부터 崔惟淸의 덕망에 감복하고 있었는지라 군사들에게 그 집은 다치지 말라고 했던 까닭에 친척까지 모두 다 화를 면하였다. 또한 명종도 즉위하자 崔惟淸의 지난날의 덕행과 명망이 있었음을 알고 그를 중서시랑평장사로 임명하였다가 이어 수사공집현전대학사판예부사로 올리고 치사케 하였다.¹⁸⁾ 이처럼 덕망과 명망이 있었던 그가 이토록 중앙 정계에 복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좌천 이유 때문이다. 大寧侯 暉은 의종 2년에 侯로 책봉되었는데, 도량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매부 낭중 鄭鉉가 大寧侯 暉을 초대할 때에 그릇을 빌려 준 일로 간관들이 崔惟淸이 대신의 체면을 잃었다고 간하여 南京留守使로 좌천되었다. 大寧侯 暉의 왕위 찬탈 역모 혐의는 풀리지 않고 상소가 계속되어 결국 大寧侯 暉은 의종 11년(1157) 2월 天安府로 귀양을 갔고 崔惟淸은 忠州牧使로 이직한다.¹⁹⁾ 南京의 좌천 시절은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지극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불안한 화자의 정서는 침묵으로 일관되어 문면에 드러나지 않고 노쇠한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봄에 흥이 나지 않는다고 자신과 봄을 닮고 단지 머리를 들어 밝은 해를 바라보니 長安은 서북에 있다고 할 뿐이다.

이처럼 서술에 의해 표현된 이야기는 일종의 함축적인 이야기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서술의 배후에 의미를 감추어두어 화자의 정서를 암시해 준다. 시에서의 화자의 정서를 모두 말한 것처럼 보이게 할 뿐 진정한 의미를 서술의 이면에 숨기는 것은, 묘사가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처럼 하여 의미를 이면에 숨기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다만 무엇의 이면에 숨기냐는 것이 다를 뿐이다.

화자는 침묵 속에서 훌륭한 관리로서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한다.

18) 『고려사』권 90 열전, 종실1.

19) 『고려사』권 125 열전, 간신1.

志士惜事業	志士는 사업을 소중히 여기고
宵人戀珠金	小人은 재물에 마음을 두네
經營兩不暇	두 가지 다 경영할 겨를은 없거늘
羲和走駸駸	세월은 가기 바쁘다
荒蕪癯百草	쓸쓸한 무덤엔 잡초만 우거졌으니
賢愚同一沈	어진 이 어리석은 이 모두 함께 누워 있으리
何如且日飲	어떻게 하면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實腹而虛心	배를 채우고 마음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

『雜興』9-6

志士는 사업을 소중히 여기고 小人은 재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자신이 중앙 정계의 복귀를 기다리는 것이 재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서라는 일종의 자기변명이다. 선정과 축재는 둘 다 잘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은 사업을 소중히 여겨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좋은 정치를 하고 싶는데, 소식은 없고 세월만 흐를 뿐이다. 이렇게 세월이 마냥 흘러 죽어 무덤에 묻히면 志士와 小人의 구별이 없어져버릴 것이니 외직에서 세월을 보내는 화자는 초조하기만 하다.

‘날마다 술이나 마시면서 배를 채우고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는 『老子』의 ‘그 마음을 비게 하고, 배를 채워 준다’(虛其心, 實其腹)를 인용한 것으로, 그의 정치적 포부가 다름 아닌 백성의 욕구를 채워 주는데 있음을 뜻한다. 이로 볼 때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경사자집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²⁰⁾는 화자의 정치적 관심은 老子의 생각처럼 백성의 욕구가 무엇임을 알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늘 중앙 정계의 복직을 염원하며 외직인 남경유수사로 大寧侯 暉의 일이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세월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초조해했지만, 그는 만 5년을 같이 했던 남경 백성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 화

20) 『고려사』권 90 열전, 종실1.

자가 李資謙의 실권 후 內侍로 소환되어 좌사간으로 있다가 尙州 원으로 나가서 은혜로운 정사를 폼다는 것에서도 훌륭한 지방관으로서 면모를 알 수 있다. 이때 술은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의 수단이 아니라, 중앙 정계에 복귀하여 여유 있고 즐거운 상태에서 마시는 것으로 복숭아꽃 배꽃이 필 때 마시려던 술과 같은 의미이다. 술에 의미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4. 무념

화자는 현실을 상징하는 화창한 봄날 경치에 몰입하지 못하고 지는 해를 보며 무념의 상태가 된다. 이는 낮으로 상징되는 현실에서는 大寧侯와 관련된 개경의 정국에 대한 불안과 복귀에 대한 기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화자의 정서를 암시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집착이 되어 자신을 얽어맨다. 화자는 이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我未始知禪	내 처음 禪을 몰랐을 때
因閑聊試貫	한가로워 그냥 시험해봤다
道本無可修	도란 본래부터 닦을 게 없는 것
心須早脫絆	마음이 빨리 얽매임을 벗어나야 하지
一源苟淵澄	마음이 정말 깊고 맑다면야
萬象俱冰泮	만상이 모두 얼음처럼 풀릴 것이니
兀兀復騰騰	꿈쩍 않고 우뚝 앉아서
且作大憨漢	우선 큰 어리석은 자 되리라.

「雜興」9-9

일찍이 禪을 몰랐을 때 한가로워 그냥 시험해봤다고 하는 말은 화자의 겸손에서 나온 말이다. 화자 崔惟淸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경사자집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고

또 부처를 흑신하여 날마다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는데,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학생과 승려들이 모여 들어서 배우며 질문하였다¹⁾고 할 정도로 불교에 조예가 깊었다. 그러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道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얽매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중앙 정계 복귀에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는 충고이다. 마음이 정말 깊고 맑다면 현실의 모든 얽힌 일이 다 얼음 녹듯이 해결되어 어느 날 혐의를 벗고 돌아갈 터이니, 꼼짝 앓고 앉아서 어리석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집착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몹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나 무념의 상태가 되려는 굳은 의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래형이지 현재형이 아니다. 첫 수에서 화자가 현실을 상징하는 화창한 봄날 경치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무념의 의지는 현재 번민에 쌓여있다는 화자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聯詩의 경우 보통 2-5편 정도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雜興』이 아홉 수나 되는 것은 당시 오랜 좌천 생활에서의 화자 崔惟淸의 고뇌가 그만큼 크고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절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崔惟淸은 이 시를 쓴 직후인 1157년 2월 충주목사²⁾ 1158년 광주목사로 옮겼다가³⁾ 1161년 5월 56세가 되어서야 10년 동안의 외직 생활을 끝내고 봉원전대학사⁴⁾로 개경에 돌아갈 수 있었다. 사료에는 그가 비록 지방으로 강직되어 오랜 기간을 지냈으나 태도가 태연하였다⁵⁾고 했지만, 재상으로 정치 생활의 정점에서 외직인 남경유수사로 좌천되

21) 『고려사』권 90 열전, 종실1.

22) 『고려사절요』권11, 의종 장효대왕, 정축 11년.

23) 『고려사절요』권11, 의종 장효대왕, 무인 12년.

24) 『고려사』권17, 의종 신사 15년.

25) 『고려사절요』권11, 명종 광효대왕, 갑오 4년.

어 6년간을 지내며 느낀 그의 좌절감과 그런 자신에 대한 질책, 반복되는 번민과 그 번민을 의지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雜興」아홉 수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서수격인 첫 수를 제외한 「雜興」의 8구체 古詩들은 산문화된 직설적인 어법으로 장중하면서도 음조나 말의 변화를 풍부하게 하여 굴곡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는 강한 기세를 보이는 무신집권기의 장편 古詩들과는 다른 간결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고려 전기에 아직 장편 古詩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간결성은 고려 전기 단편 古詩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간결한 단편 古詩에서 산문적이고 변화가 풍부한 장편 古詩로의 이행은 고려 전기와 중기 문학을 나눌 수 있는 형식적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서수격인 첫 수에서 함축된 의미를 나머지 여덟 수에서 풀어나가는 구성은 단편 古詩의 간결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후 출현하는 무신집권기의 다양한 聯詩 구성법과 함께 고려 聯詩의 한 유형을 이룬다.

III. 결론

崔惟淸의 五言古詩 「雜興」에서 중앙 정계의 복귀를 염원하는 화자의 정서가 어떤 양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연결 방식을 중심으로 聯詩로서의 구성 원리를 살펴본 결과 序首 격인 첫 수에서 함축된 화자의 정서를 나머지 여덟 수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五言古詩 「雜興」의 序首 격인 첫 수는 압운과 평측이 자유롭다는 古詩의 특징을 제외한다면 近體詩의 압축적인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압축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은 8구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단편의 8구체의 간결한 古詩들은 산문화된 직설적인 어법으로 장중하면서도 음조나 말의 변화를 풍부하게 하여 굴곡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는 강한 기세를 보이는 무신집권기의 장편 古詩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고

려 전기에는 아직 장편 古詩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수적인 첫 수에서 함축된 의미를 나머지 여덟 수에서 풀어가는 구성은 장편 古詩가 일반화되지 않은 고려 전기 시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장편 거작이 대거 출현하는 무신집권기의 다양한 聯詩 구성법과 비교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五言古詩(ancient poem of five words), 聯詩(the sonnet sequence), 序首(the first opening poem), 함축(implication), 서술(narration)

참고문헌

- 『고려사』, 동아대학교 古典研究室 편, 동아대학교 출판사, 1965.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역, 민족문화추진회, 1968.
김준오, 『詩論』, 삼영사, 1997.
김혜원, 「18·19세기 연시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구의, 「文淑公 崔惟淸」, 『高麗漢詩研究』, 아세아문화사, 2001.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이혜원, 「중국시에서의 楊柳 이미지 분석과 상징의 연구」, 『중어중문학』22, 중어중문학회, 1998.
이혜순, 『고려전기한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趙齊平, 『宋詩臆說』, 北京大學出版社, 1996.

<Abstract>

The Special Quality of Sonnet Sequence(聯詩) in
Yucheong, Choi(崔惟清)'s 「VARIOUS FEELINGS」(雜興)

Yoon, Sang-Reem

Yucheong, Choi(崔惟清)'s 9 poems of the ancient poem of five words(五言古詩) 「VARIOUS FEELINGS」(雜興) was written in his 62-year-old beginning of the spring just before that he was appointed to the Chung Ju Official(忠州牧使) in February 1157 while he was demoted to Nam Kyeong Official(南京留守使) in his 56-year-old May, 1151 by his involving in the event of Great Marquess(大寧侯) Kyeong(暕). 「VARIOUS FEELINGS」 was written as the ancient poem of five words(五言古詩) the sonnet sequence(聯詩) that was composed systematically by the same time, space, and subject that was limited for 6 years. Speaker's emotion, which was implied in ancient poem of five words(五言古詩) the sonnet sequence(聯詩) the first opening poem(序首), was materialized in the remaining 8 poems.

The green Spring is the season that symbolizes the life-force and youthfulness comparing with the speaker who becomes old and ugly as wasting time and losing the political ambition. Speaker is upset without getting merry even if it comes to the Spring. The beginning of green Spring shows the state that the peach and the pear do not bloom yet their flowers. The beginning of green Spring means the speaker's demotion situation and the blossoms of peach and pear mean the reinstated in his former position to Gae Kyung(開京).

Sleeping at high noon symbolizes to escape from the relegated actuality that is symbolized by day. Sleeping speaker displays that he was segregated from the actuality world. And speaker's narrate who tries to forget the trouble by drinking is equal to the narration that he sleeps at high noon. The relegated actuality sends him time uselessly and makes him irritated, but the speaker shows the interests and the affection for Nanjing peoples who are taking the charge of. Speaker becomes to reach the unselfish state as he sees the sunset. The daytime symbolizes the relegated actuality and speaker does not find his identity by discord and agony, but the night only symbolizes his own world and then he looks his hard will to become free from all ideas and thoughts as finding his own identity.

But this shows paradoxically that his hard will to become free from all ideas and thoughts means his present emotion not being free from all ideas and thoughts while speaker was not absorbed in the scenery of fine Spring day that symbolizes the present actuality and was free from all ideas and thoughts on the sunset scenery ending day time.

윤상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 1동 133-2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11-719-9259

e-mail: wakoyun@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